

카지노

마카오 카지노 정켓 사업자들, Cotai 지역 신규 카지노에 관심 저하

엔터/레저 Analyst 황현준
02. 3779-8919
realjun20@ebestsec.co.kr



News

- 마카오 Association of Gaming & Entertainment Promoter는 향후 VIP 카지노 영업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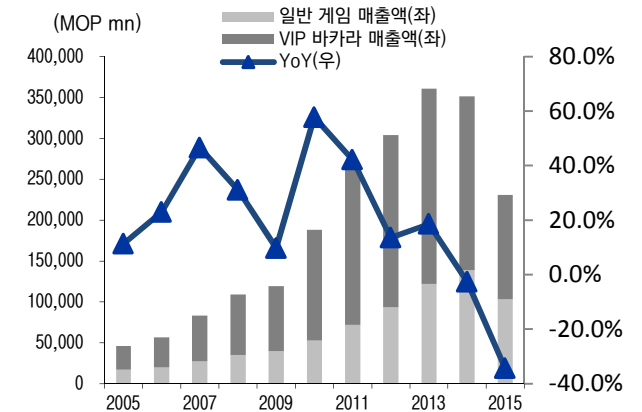
Implication

- 마카오 Association of Gaming & Entertainment Promoter의 회장 Kwok Chi Chung은 향후 마카오 카지노 VIP 섹터 전망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을 표명하였고 올해에도 VIP 룸 축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
- 올해 The Parisian, Wynn Palace 등이 Cotai 지역에 오픈 예정이지만 마카오 정켓 사업자 및 카지노 영업권자들은 신규 카지노 VIP 룸 개설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
- 마카오 카지노 시장의 VIP 비중은 2004년 최고 72%에서 최근 55%까지 축소되었으며 2015년 VIP 바카라의 카지노 매출은 YoY 40% 감소
- 마카오 카지노 사업자들은 VIP 고객 트래픽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VIP 부분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는 전략으로 선회 중
- 정켓 사업권자도 2015년초 183개 업체에서 1년 사이 142개 업체로 23% 감소
- 2015년 상반기보다 속도는 둔화되겠지만 올해에도 VIP 룸의 축소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

Call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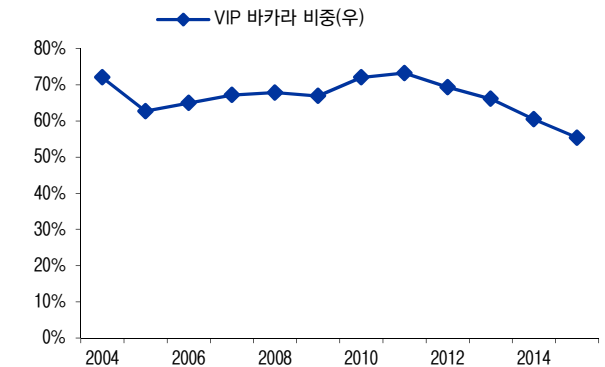
- 1 마카오 정켓 사업자 및 카지노 영업권자들은 신규 카지노 VIP 룸 개설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
- 2 1H15 보다 속도는 둔화되겠지만 마카오 카지노 사업자들은 올해에도 VIP 룸을 지속 축소할 것으로 예상

마카오 연간 카지노 시장 매출액



(자료: DJC)

마카오 카지노 테이블 게이بل 증설 추이



(자료: DJC)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황현준)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-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

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

구분	투자등급 guide line (투자기간 6~12개월)	투자등급	적용기준 (향후 12개월)	투자의견 비율	비고
Sector (업종)	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	Overweight (비중확대) Neutral (중립) Underweight (비중축소)			
Company (기업)	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	Buy (매수) Hold (보유) Sell (매도)	+20% 이상 기대 -20% ~ +20% 기대 -20% 이하 기대	92.1% 7.9%	2015년 2월 2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4 단계 (Strong Buy / Buy / Marketperform / Sell)에서 3 단계 (Buy / Hold / Sell)로 변경
		합계		100.0%	투자의견 비율은 2015. 1. 1 ~ 2015. 12.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(최근 1년간 누적 기준, 분기별 갱신)